

부처님 땅 인도에
1천여년만에 다시 싹트는 불교!
인도불교부흥에 한국불자들의 염원을 전합니다.
인도불교돕기추진위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 (예금주: 인도불교)

“NO! WAR, 함께사는 세계를” 외침 들리는가?



◇광주 나눔의 집 할머니들이 15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국제공동반전평화대행진에 참석, 반전과 평화를 촉구했다.



◇실상사는 15일 신도와 산내민지역 주민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평 반대 평화기원제를 올렸다.



◇조계사 재주 본오스님이 18일 신도들과 '전쟁반대' 피켓을 들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기원하고 있다.

‘전쟁반대! (NO! WAR)’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과 북핵문제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찰과 불교단체들의 반전운동 움직임이 거세다.
조계사가 18일부터 법회 및 강좌에 앞서 평화기원문 낭독 등 반전과 평화염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남원 실상사에서는 15일 전쟁반대 평화기원 대보름행사를 열었다.



◇조계사 신도들이 대웅전에서 평화를 염원하며 정근하고 있다.

조계사(주지 지홍) 신도 500여명은 18일 ‘전쟁반대, 평화수호 기원법회’를 봉행한 뒤 ‘전쟁반대’ 피켓을 들고 평화수호 의지를 다졌다. 이날 법회에서 조계사는 ‘평화의 메시지’를 채택하고 “지금 전 세계는 테러를 응징해 자국민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태세로 세계평화와 인류애를 위협하고 있다”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전 평화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2천만 불자가 나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계사 신도회는 현재 모든 법회나 교양 강좌 진행시 전쟁반대 결의문 및 행동지침 낭독, 평화를 염원하는 정근 및 탑돌이를

날려 보냈다.
불교단체들의 반전평화운동도 적극적이다.
재가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회 인드라광생명공동체 불교여성개발원등 교계 10여개 사회단체는 20일 연석회의를 갖고 선언문 채택, 사찰에 ‘반전평화의 등’ 달기 등 반전평화운동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불교단체들은 이날 채택한 반전평화선언문을 통해 미국의 이라크 침공반대, 유엔을 통한 평화적 해결촉구, 미국의 한반도 긴장고조 반대,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노무현정권의 역할 및 제31대 총무원에

조계·실상사 평화기원 법회·대보름 촛불행사 교계 10여단체 선언문 채택·‘평화의 등’ 달기 운동 나눔의 집 대학로에서 국제 반전대행진 참여 종교인평화회의 평화지킴이 1천만명 서명 추진

하고 있다.
남원 실상사(주지 도법)는 15일 실상사에서 사부대중과 산내면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평 반대 평화 기원 대보름행사를 개최했다. 참가대중은 대보름 기원문을 통해 “미국과 영국이 정의와 세계평화라는 구호를 앞세워 전면적인 공격을 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침략행위”라며 “이제는 미국이 오만하고 이기적인 정책을 내려놓고 세상 모든 나라가 공존하는 평화의 바다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세상에 미움과 전쟁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실상사는 평화 촛불기원 행사를 진행하며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모아 달집 연기에 실어 온 세상으로

대한 당부메시지를 담았다.
단체들은 24일 2차 회의를 갖고 수도권 10여개 사찰에 반전평화의 등달기 운동, 명사초청강연회 등 불자들의 역할을 결집할 방안을 세우고 있다.
나눔의 집 할머니들도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15일 서울 대학로 2.15 국제공동 반전평화 대행진에 참여했으며, 한국종교인 평화회의도 18일 포럼을 열었다.
전쟁 때문에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전쟁의 참혹함을 전쟁의 제일 밑바닥에서 몸서리치게 경험한 광주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13일 반전과 평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통해 “지금 세계는 미국의 공격 위협과 북핵 문제를 빌미삼은 전쟁 위기에 놓여있고,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

었던 우리 할머니들은 또다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며 “부시는 테러와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인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위협은 부시의 전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과 북한 핵문제가 세계 평화와 안보에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7개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평화만들기 종교인 포럼’을 열었다.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상임집행위원장 학담스님은 이날 포럼에서 “반전과 반핵 평화

만들기에 종교인들이 앞장설 것”을 천명했다. 종교인평화회의는 앞으로 평화 지키기 1천만 서명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세계 평화 운동가들이 ‘반전 평화의 날’로 선포한 15일 100여개 나라 400여개 도시에서 1천만명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반전평화 행사가 열렸다.
‘국제 반전행동의 날’을 맞아 국내에서도 15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원주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이라크공격 반대, 한반도 전쟁 위험 반대를 위한 2.15 국제 공동 반전평화 대행진을 개최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기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제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은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